상습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한 광주

수차례 적발돼도 사법부 처벌은 '낮은 벌금형'

소속 기관에선 '제식구 감싸기' 징계 미적미적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법부의 느슨한 잣대와 민간 부문의 방치가 음주운전 급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광주지역에서 하루 3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1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광주일보 10월23일자 6면〉된 가운데 지난 2001년 도입된 뒤 유명무실해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5년 이내 3회 음주운전 시 구속)'가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과거 수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운전을 한 광주 모 사립대 직원 A(53)씨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했다.

A씨는 최근 5년 사이 음주운전을 하다 수차례 적발됐으나 이 때마다 비교적 낮은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매월동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풍암동 모 전자제품 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소속된 대학 역시 음주운전 사실 적발은 물론 법원 판결 이후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는 등 '자기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립대의 B교수도 최근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사고가 지역사회 전반에 팽배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국립대나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될 경우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상습적인 경우 면직이나 해임되는 경우까지 있다.

광주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운전자와 이를 방치하는 해당 기관이 음주운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안전띠 미착용 사고땐 뒷좌석 손님 일부 책임"

택시 뒷좌석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로 다쳤다면 손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뒷좌석에 타고 가던 택시가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친 뒤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좌석에 부딪혀 다쳤다.

재판부는 "사고는 택시기사의 업무상 과실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입제도에 높은 관심 광주지역 교육단체인 '100년교육포럼'(대표 남청웅)이 30일 오후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5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대비해 마련한 '변화하는 대입제도와 효율적 학습법'이란 강좌에서 지역 중·고교생 학부모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종로타운' 분양 사기 혐의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조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된 르메이에르건설 정모(62) 회장을 30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과 입주자 등에 따르면 정 회장 측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5·18비하 '전사모' 회원에 무죄

5월 관련단체 등 반발

인터넷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 등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속칭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5·18 왜곡·비하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 추이를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윤권원)은 30일 인터넷에서 5·18을 비하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43)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로 5·18 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각 게시물의 내용이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3년인데 해당 공소가 공소시효를 지나 제기된 만큼 해당 혐의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9년 (사)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신경진 회장 등은 "오씨 등이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나 외부 불순 세력이 침투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등의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5·18을 비하했다"고 고소했다.

신경진 회장은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5·18 왜곡이 극에 달한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5·18 역사적 진실을 왜곡,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면서 "5월 관련단체 등과 논의한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 기념재단과 5월 관련단체 등은 이날 '사법부는 5·18의 진실을 판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지만원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재판부의 명예훼손죄 불성립 논리는 군사반란·내란·내란목적 살인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주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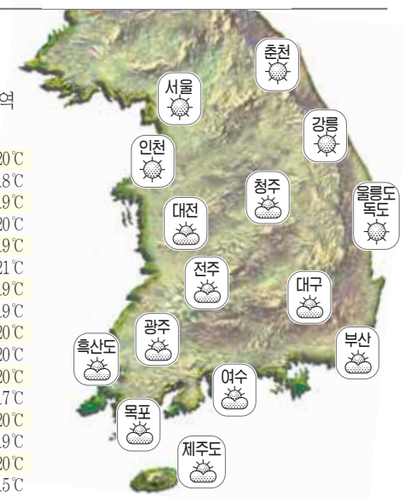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52분 해짐 17시 39분 | 달뜸 03시 13분 달짐 15시 30분

큰 일교차 조심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지역 서리 내리는 곳 있겠다.

광 주	구름많음	9/20℃
목 포	구름많음	9/18℃
여 수	구름많음	12/19℃
나 주	구름많음	6/20℃
완 도	구름많음	9/19℃
구 례	구름많음	6/21℃
강 진	구름많음	6/19℃
해 남	구름많음	5/19℃
장 흥	구름많음	6/20℃
순 천	구름많음	5/20℃
영 광	구름많음	7/20℃
진 도	구름많음	7/17℃
전 주	구름많음	7/20℃
군 산	구름많음	5/19℃
남 원	구름많음	5/20℃
흑산도	구름많음	13/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밀물	썰물
목포	11:38 23:54	04:53 17:14
여수	06:54 18:58	00:30 12:4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날 씨						
최저/최고	10/20	9/20	10/18	8/18	5/19	8/18

광주교육청 '안심알바 신고센터'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공부하고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심알바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라며 필요한 학생은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30일 밝혔다.

안심알바 신고센터는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 최저임금과 각종 수당을 홍보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센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75건의 민원을 접수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상담을 통해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안심알바 신고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노동인권이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149명 9급 공무원 선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149명이 지역·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를 통해 9급 공무원으로 선발됐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지역·기능인재 9급 공무원 추천채용 선발시험 합격자 169명의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 : //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지역인재 합격자는 119명이고 기능인재 합격자는 50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 전원과 기능인재 가운데 30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이다. 나머지 20명은 전문대학 출신이다.

지역별 합격자는 서울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6명, 인천이 15명, 부산은 10명, 경남이 8명, 광주·전남·대전이 각 7명 순이었다. /연합뉴스